

볼리비아의 최근 국유화 동향

■ 지난 7월 11일, 볼리비아 정부는 캐나다 광산회사 사우스 아메리칸 실버(SAS)가 소유하고 있던 말쿠 코타 지역의 광산 개발권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힘.

- SAS사는 2014년까지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지역의 은광을 개발할 예정이었음.
-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동 기업의 투자부족을 근거로 보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이번 국유화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회복 정책과 동 지역에서 소규모 채굴을 해오던 원주민들의 투쟁의 결과임.

-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6년 취임 당시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 회복을 강조하였으며, 실제로 지난 6년간 석유,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그리고 기초산업과 관련한 30여개의 다국적 기업을 국유화한 바 있음.

표 1. 볼리비아 현 정부의 주요 국유화 사례

	국유화 사례
2006.5.1	페트로브라스, 렘슬YPF,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브리티시 가스, 토탈사, 엑손 모빌 등의 유전 개발권
2008.5.1	이탈리아 Entel사의 통신 시설
2010.5.1	프랑스 GDF Suez, 영국 Rurelec사의 발전 시설
2012.5.1	스페인 REE사가 보유한 Transportadora de Electricidad의 송전시설
2012.6.22	스위스 Glencore사의 Colquiri 광산의 아연 개발권
2012.7.11	캐나다 SAS사의 말쿠 코타 지역 은-인듐-갈륨 개발권

- 해당지역 원주민들은 SAS와 같은 기업들에 의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위를 벌여온 것이 이번 국유화 결정을 촉발시킴.
- o 3주전에 국유화한 콜리키 아연광산의 개발권 역시 지역 광부들의 시위로 취소됨.

■ 천연자원은 풍부하나 인프라와 기술이 부족한 볼리비아는 일련의 국유화조치로 국제 여론이 악화되었음에도 기술도입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 의지는 강함.

- 일련의 국유화 조치가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불안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의 FDI 유입액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1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함.
-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볼리비아 정부는 리튬 제조와 관련한 외국기업의 참여는 허가하지 않았으나, 리튬 소재 산업화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허용한다고 밝혀옴.
- o 이에 최근 포스코는 볼리비아 정부와 양극재 생산을 위한 R&D 투자 및 공동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24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함.

(이시은 연구원)